조계사 단기출가…“참다운 부처님 제자로!”

2월 25일 대웅전서 입재식 봉행
20세부터 29세까지 총 18명 동참
3월 2일까지 예불·운력·수행 경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예방도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무명초라 일컫는 머리카락을 자르고 있는 남행자.

“부처님께서 주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받들어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서로 화합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로 거듭나겠습니다.”(발원문 中)

2월 25일 저녁, 조계사 대웅전에는 청년 수행자들의 비장한 다짐이 울려 퍼졌다. 극심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로 길을 잃었던 청년들이 불교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자 출가의 문을 두드린 것이다.

조계사(주지 원명 스님)는 이날 불기 2569년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입재식을 봉행했다. 이번 단기출가에는 20세부터 29세까지 대학생·청년 남녀 각 9명씩 총 18명이 동참했다.

조계사 부주지 탄보 스님은 ‘처음 발심할 때의 그 마음이 곧 깨달음’이라는 ‘초발심시변정각’을 언급하며 “불교를 배우고 수행 생활을 경험하겠다고 결심한 여러분은 이미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라고 행자들의 출가를 허락했다. 탄보 스님은 이어 “자기 안에 잠들어 있던 인내를 끄집어낸다는 각오로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묵묵히 수행하고 정진하다 보면 몸의 자유가 아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깨닫게 된다”고 당부했다.

부처님과 계사 스님, 부모님에게 삼배를 올린 행자들은 ‘번뇌초’ ‘무명초’라 일컫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며 수행 의지를 다졌다. 다만 삭발의식은 머리카락을 일부만 잘라내는 약식으로 대신했다.

이어 평상복과 휴대폰 등 개인물품을 상자에 담은 후, 행자복으로 갈아입고 대승원력 10계에 맞춰 절을 하며 출가자로서의 서원을 다졌다.

출가행자들은 발원문을 함께 낭독하며 출가의 길을 내딛었다. “물질과 성공이라는 세속의 가치를 좇느라 저희 안에 쌓인 온갖 근심과 걱정을 버리고 작은 소유에도 만족하며 몸과 마음을 청정히 지키겠습니다.”

다음날인 2월 26일에는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화나는 일이 있을 때, 번뇌가 생길 때 그 감정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괴로움이 생긴다”며 “그땐 순간순간 마음을 툭 내려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단기출가를 하는 5박 6일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경험으로 남길 바란다”며 “스님들의 지도에 따라 드러내려는 마음, 즉 욕심이 없었는지 늘 되새겨보면서 보람 있는 시간을 보내라”고 격려했다.

출가행자들은 3월 2일까지 5박 6일 동안 예불과 정진, 수행과 운력을 병행하며 출가자의 삶을 직접 체험한다.

“부처님 법 모범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수미산원정대, 2월 22일 8기 졸업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 계사로
9기 입학식 2월 26일…107명 입학



수미산원정대 8기 수계졸업식에서는 졸업생 62명이 배출됐다.

상월결사 정신을 실천하고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수미산원정대(단장 원명 스님, 봉은사 주지)가 8번째 졸업생을 배출했다.

서울 봉은사는 2월 22일 경내 법왕루에서 ‘수미산원정대 8기 수계졸업식 및 동문회 출범식’을 봉행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을 계사로 단장 원명 스님, 종호 스님을 증명법사로 진행된 8기 수계졸업식에서는 졸업생 62명이 배출됐다. 이로써 상월결사 졸업생은 금번까지 529명이다.

수계졸업식에 이어 동문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8기 동문회장에는 곽영진(자관) 씨가 임명됐다. 단장 원명 스님은 8기 동문회 발전기금 2000만원을 전달하며 동문회 발전을 기원했다. 원명 스님은 “수미산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닌 함께 길을 향하는 것”이라며 “8기가 잘 뭉쳐서 더 앞 서 갈 수 있도록 신행활동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상월결사 이사장 호산 스님은 “수미산원정대는 정제계, 교육 어떤 분야에서든 최고의 불자를 만들겠다는 해봉당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이 자승 대종사의 전법 정신을 함께 한다면 수미산원정대가 한국불교 중흥의 큰 기둥이 되고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미산원정대 9기는 2월 26일 오후 7시 제9기 입학식을 봉행했다. 9기 입학생은 107명으로 8기 및 선배 기수 추천인으로 구성됐다. 임은호 기자

불교리더스포럼, 신년하례만찬…“불자 역량 결집 최선”

2월 20일, 서울 반얀트리서
정원주 회장 축하패 수여도



불교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리더스포럼은 2월 20일 서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크리스탈볼룸에서 ‘2025 불교리더스포럼 신년하례만찬’을 개최했다.〈사진〉

이기흥 상임대표는 “올해 리더스포럼은 4월 14~18일 중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함께하는 불교도대회를 예정하고 있고, 4월 중순부터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순회하면서 교구신도회를 보강하고 재정비하겠다”며 “종단 차원에서 준비중인 국제선명상대회, 서울국제불교박람회,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중앙신도회 70주년 기념행사 등 다양한 활동에도 불자들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기흥 상임대표는 제28대 중앙신도회장으로 지난해 10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정원주 불교리더스포럼 상임부대표에게 축하패를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각자 자리에서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불교리더스포럼 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내영 기자

25돌 군불총 “호국불교 정신 계승” 다짐

국방부 원광사서 기념법회



창립 25돌을 맞은 군 대표 신행단체 국군불교총신도회가 호국불교 정신 계승과 군불교 진흥을 다짐했다.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고현석 군불총)는 2월 22일 국방부 원광사에서 창립 25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제3대 군종교구장을 역임한 정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직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의 삶이 직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직분을 다하는 삶이 돼야 한다”면서 “우리가 대승적 삶을 살기 위해서도 직분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재가와 승가 모두 부처님 법을 전하며 살려면 내 스스로 직분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강조했다.

고현석 군불총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호국불교 정신 계승을 다짐했다. 고 회장은 “군불총은 지난 2000년 2월 발족된 이래 군불교 발전에 중심으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특히 금년도 6월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봉행되는 ‘호국영령 위령대재’는 의례적인 추모행사를 넘어 불교적 가치를 지향하는 호국보훈의 행사로 조계종단 차원의 행사를 추진하려 한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빈곤·차별없는 세상을 염원합니다”

사노위, 송파 세모녀 11주기 추모제



사회복지 사각지대에서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달리한 송파구 세모녀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기초법 바로세우기 공동행동,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3대적폐 폐지 공동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공동으로 2월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송파 세모녀 11주기 추모제’를 개최했다.

이날 조계종 사노위는 추모제에 앞서 추모 기도회를 진행했다.〈사진〉 서원 스님 및 사노위원스님들은 아미타불을 염송하며 송파구 세 모녀와 빈곤과 차별로 세상을 등진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사노위원 한수 스님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한다.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죽지 않게 하는 참정치를 해달라”면서 “송파구 세 모녀를 비롯해 가난과 장애 때문에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추모제에서는 빈곤과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며 연대 발언들도 이어졌다. 신중일 기자

이길수 회장 “젊은 불자 용기로 청년포교”

2월 21이 진우 스님 예방서
대불청 올 주요사업계획 보고



이길수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나 청년 전법활동의 포부를 밝혔다.〈사진〉 기존 사업을 체계화해 후배들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하고 미래세대 청년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단체에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계획이다.

이길수 회장은 2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이 같은 사업계획을 알렸다.

이길수 회장에 따르면 대불청은 ‘젊은 불자의 기백과 용기로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하고 무명의 세계를 밝히는 빛이 되자’는 슬로건으로 청년포교에 매진할 계획이다.

대불청은 한때 250여 개 지회를 가진 전국 대규모 단체였지만, 현재 50개 지회로 축소됐으며 회원도 50~60대가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화 상태에 이르렀다. 중앙에서는 지구와 지회를 관리하고 사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상태다.

이에 대불청은 정관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를 도입, 기존 사업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이룩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또 청년회를 신설, 연수교육체계를 구축하고 법회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회간 소통에 나선다. 만해백일장 위원회, 콘텐츠 위원회, 국제위원회를 신설해 미래세대 청년불자를 위한 준비도 해나갈 예정이다.

대불청의 활동계획을 세심히 살핀 진우 스님은 “종단에서 해야할 일을 준비했다”고 치하하며 “종단 포교부와 함께 지원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은호 기자

명원 스님 “글로벌 리더 양성에 최선”

스카우트불교연맹, 2월 23일
3대 연맹장 명원 스님 취임식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등 불교국가와 교류 확대로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카우트불교연맹 제3대 연맹장에 반야사 주지 명원 스님이 취임했다.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은 2월 23일 청계사 설법전에서 스카우트 지도자와 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대 연맹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명원 스님은 취임사에서 “청소년 포교 일선에 서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불교스카우트 운동은 그간 부처님 가르침과 신라 화랑도 정신을 계승해 청소년들의 심신 수련과 인성 함양에 기여해왔다”고 밝혔다.

명원 스님은 불교스카우트 핵심 목표로 △특화된 프로그램 보급 및 개발 △국제교류 강화 △전문 지도자 양성을 제시했다. 스님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고 즐겁고 유익한 불교스카우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며 “선명상 등 불교연맹만이 할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어린이·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 마련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생명나눔, 호국 쌍용사서 수계법회 봉행

군장병 150명 · 신도 50명 대상
일면 스님 “슬기롭게 병영 생활”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대종사)는 2월 23일, 춘천 2군단 사령부 내 조계종 군종교구 호국 쌍용사(주지 법사 혜진)에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정예신병이 되기 위해 심신을 단련하고 있는 군장병 150여 명과 일반 신도 50여 명이 수계를 받았다. 수계법회는 삼귀의 및 반야심경 봉독을 시작으로 청성, 청법가, 청사, 개도, 법문, 참회, 연비, 귀의, 선계상, 발원, 계첩수여, 사홍서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일면 스님은 법어에서 “군장병과 불자들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아 불자가 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계사를 청하니 기쁜 마음으로 수계의식을 진행하겠다”며 “오계를 수지한 불제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수계를 통해 군 생활에 안정과 자신감을 갖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병영 생활을 해나가길 바란다”라고 축원했다. 임은호 기자

‘평안 기원’ 염불 자원봉사단 모집

제14기 염불자원봉사팀 양성교육
3월 14일까지 접수, 20명 선착순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묘장 스님, 이하 복지재단)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슬픔을 함께 나누고 교계 상·장례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 중인 염불봉사팀의 신규 자원봉사자 신규 자원봉사자 장성을 위해 제14기 염불자원봉사팀 양성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양성교육은 3월 25일~5월 2일 매주 화·금요일 오전 10~12시 12회에 걸쳐 진행된다. 서울 전법회관 지하 1층 선운당에서 진행되며 우리 선원명상센터 원장 도영 스님과 국립경찰병원법당 지도법사 무관 스님을 강사로 조가연습, 염불 및 목탁 집전 교육, 상가예절 등의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3월 14일까지 총 20명 선착순 모집한다. 임은호 기자